

【 국내금융 뉴스 】

보험사의 전자금융 취급 실적 여전히 미약

□ 전자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85개 금융회사가 제출한 업무보고서를 토대로 '08. 4/4분기 및 연간 전자금융 취급실적을 분석한 결과 은행, 증권 및 카드권은 증가한 반면, 보험권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.

○ 금융업종별 대상 회사 수는 은행 18개사, 증권 36개사, 보험 26개사, 전업카드사 5개사이며, 보험사의 경우 인터넷을 통한 청약 및 초회보험료(1회)를 전자금융으로 납입한 회사를 기준으로 함.

□ 은행의 경우 전자금융 가입자 수(12.6%, 9백만명)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자금거래건수 및 자금거래금액이 전년대비 각각 12.5%(557백만건), 18.9%(1854조원) 증가하여 1998년 9월 인터넷뱅킹을 시작한 이래 최초로 거래금액이 1경원을 돌파하였음.

○ 증권의 경우에도 온라인 증권거래 가입자 수(2.8백만명)가 31%로 크게 증가하면서 거래건수 및 거래금액이 전년대비 각각 15.6%(137백만건), 6.4%(366조원)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.

□ 반면, 2008년 보험거래 실적에 있어서는 온라인 계약건수가 226만건으로 전년대비 11.0%(2.8만건) 감소하였고, 계약금액으로는 929억원으로 전년대비 20.6%(240억원) 감소하는 등 전체적으로 큰 하락세를 보임.

○ 이는 인터넷 보험계약 비중이 전체 보험계약실적 대비 건수기준 0.3%(금액기준으로는 0.1%)로 낮은 수준이며, 이는 상품의 복잡성으로 인해 대면계약을 선호함에 기인함.

□ 이번 실적으로 보험권역은 은행과 증권, 카드에 비해 전자금융화가 될 수 있는 범위가 한정돼 있기는 하지만 자동차보험과 상해보험 등 상대적으로 간단한 보험상품은 온라인을 통한 전자금융을 구현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보험업계의 관심이 필요할 것이라는 입장임.

('08년 4/4분기 및 연간 금융회사 전자금융 취급 실적, 금융감독원 감독서비스총괄국 IT 업무팀, 4/27)